

뭐든 이룰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낮은 신분 출신으로 조국에 영예를 안겨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따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아저씨는 내 용기를 꺾고 싶으신가 보죠?

## 노인

여보게, 내가 자네의 기를 꺾을 일은 없을 걸세. 자네에게 말해줬던 것은 과거에 해당하는 진실이네. 허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지. 이제 프랑스에서는 모든 것이 돈이면 된다더군. 작금의 프랑스에서는 모든 것이 몇몇 소수 가문의 재산이거나, 몇몇 집단에서 다 나눠 갖고 있다네. 왕은 유수의 귀족이나 집단들이 구름처럼 감싸고 있는 태양이야. 그 햇살이 한 줄기라도 자네에게 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예전에는 행정이 좀 덜 까다로웠으니 그런 일이 종종 눈에 띄었어. 그래서 그때는 모든 분야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성장했고 성과가 커졌다네. 마치 새로운 땅이 개간되면서 그 모든 정수를 빨아먹고 수익을 내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나 사람을 잘 볼 줄 알고 잘 뽑을 줄도 아는 위대한 왕은 흔치 않은 법이지. 일반 왕들은 귀족이나 집단이 세력을 휘두르면 거기에 의탁하는 수밖에 없다네.

## 폴

하지만 어찌면 그런 귀족들 중 저를 후원해줄 사람 하나